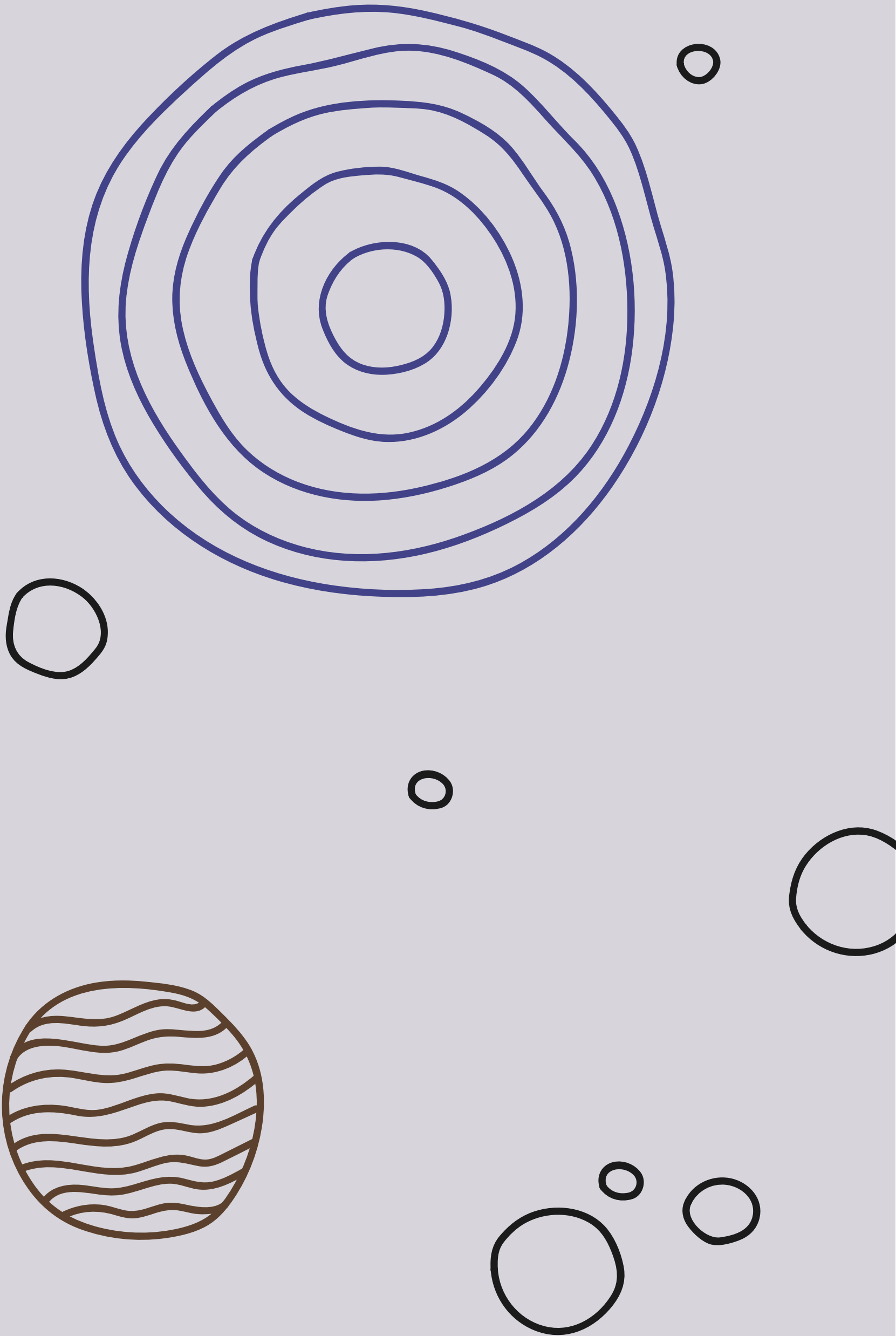


EDITOR , ILLUSTRATOR
YEOSU GYEONG

빛과 어둠, 인공이 아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빛과 어둠엔 해와 달이 있다. 그중에서도 밝음 그 자체가 아닌 어두울 때 밝은 역설적인 달에 관심이 생겼다. 달 표면에도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달 표면에서 어둡게 관측되는 부분을 바다 또는 마리아(Maria)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래동화, 이솝우화 그리고 구전동화를 많이 접해왔다. 그중에서도 달에 얽힌 동화나 문학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보름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 수 있다. 달에 토끼가 절구를 이용해 떡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달의 표면과 어둡고 밝은 무늬들을 보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제각각이다. 달의 무늬를 보며 아라비아반도에서는 '사자'로, 캐나다 원주민은 '물 옮기는 여자'로, 북아메리카에선 '책 읽는 여자', 남유럽에서는 '게', 동유럽에서는 '머리 긴 여자'를 떠올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같은 무늬를 보아도 모두 다른 것을 떠올린다.

달에는 30개의 바다가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달 표면에서 어둡고 밝은 무늬를 말한다. 내부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에서 생성된 것이다. 점성이 낮은 현무암으로 빛의 반사율이 낮아 그 모습이 어두워 보인다. 30개의 바다 중에서 4개만이 달의 뒷면에 자리하고 있다. '달의 바다'라는 소재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늬'라는 소재를 혼합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일러스트로 표현해보았다.



"꿀의 바다 – 물 옮기는 여자" <캐나다 원주민>

꿀의 바다. 말 그대로 꿀이 넘쳐나는 바다이다. 많은 괴물들은 이곳을 치유의 바다라고 부른다. 괴물에게는 꿀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약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다른 바다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이 바다를 모르는 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많은 괴물들은 이곳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바다에 사는 괴물들도 자주 와서 치유를 받고 간다. 자주 방문하는 괴물들은 많은 바다 침입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괴물들이다. 꿀이 항상 흘러넘치는 거대한 폭포에서 누구든지 꿀을 퍼갈 수 있다.



"구름의 바다 – 머리 긴 여자" <동유럽>

달에 존재하는 구름들은 이 바다로부터 생긴다. 지구에서 구름이 생기는 원리와 다르게 달에서의 구름은 구름의 바다에 살고 있는 한 여신에 의해 생긴다. 키의 20배가 넘는 길이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다. 이 머리카락에서 구름이 생긴다. 머리카락의 중간 부분부터 조금씩 구름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머리카락은 구름으로 변하게 된다.



"고요의 바다 - 토끼" <아시아>

다른 바다들과는 다르게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요의 바다이다. 이 바다에는 무수히 많은 거대한 돌들이 줄을 지어 서있다. 어느 하나 튀지 않는 자연환경으로 고요한 바다의 느낌이 더 살아난다. 이곳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달에 사는 토끼들'이 사는 바다이다. 이곳의 토끼들은 저 멀리 떠있는 지구를 항상 올려다보고 있다. 마치 우리들이 달을 보며 달에 대한 궁금증과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보듯, 달에 사는 토끼들은 지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지구에 가보고 싶은 생각을 할까?

